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틱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한일 女골프 '별들의 전쟁'

〈신지애〉

〈미야자토 아이〉

국가대항전 日서 4일 개막

신지애 - 미야자토 샷 대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09시즌에서 상금왕과 신인왕을 석권한 신지애(21·미래에셋)와 일본 골프의 대표 주자인 미야자토 아이(24)가 쿄라쿠컵 제10회 한일여자프로골프대항전에서 자존심 대결을 벌인다.

4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키나와의 류큐골프장(파73. 6천550야드)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13명씩 선수가 출전해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리는 국가 대항전이다. 신지애는 이번 한일전을 맞는 각오가 남다르다. 지난달 24일 끝난 LPGA 투어챔피언십까지 6주 연속 대회에 출전하는 강행군을 펼치느라 체력 부담이 크지만 "그동안 한일전에서 별로 재미를 못 봤다"며 이번 대회를 벼르고 있다.

"지금까지 골프를 치고 나서 운 것이 세 번인데 그 중 한 번이 2007년 한일전에서 2패를 당하고 나서였다"고 말할 정도인 신지애는 지금까지 한일전에서 1승3패에 그쳤다. LPGA 투어 상금왕과 신인왕을 휩쓴 2009년을 마무리하는 대회인 만큼 신지애의 선전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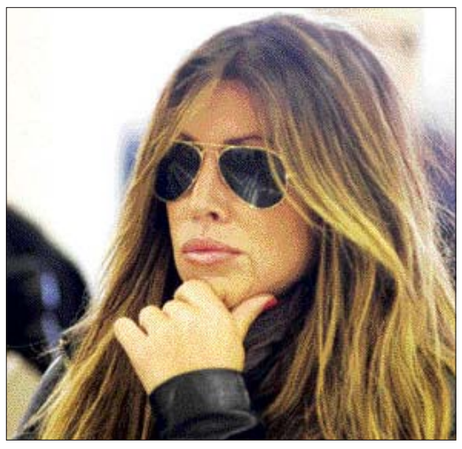
이에 맞서는 미야자토는 오키나와가 마침 고향이라 홈 팬들 앞에서 승전보를 전한다는 각오다. 미야자토가 한일전에 출전하는 것은 2004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미야자토 역시 LPGA 투어에서 올해 첫 우승의 감격을 누린데다 상금 랭킹 3위, 최저타수 4위, 올해의 선수 부문 6위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2004년 박세리(32)에게 1타 차로 분패하는 등 1승1패를 기록했던 미야자토와 신지애의 맞대결이 성사되면 이번 대회 최고의 빅카드가 될 전망이다. 올해 일본여자프로골프에서 상금왕에 오른 요코미네 사쿠라(24)도 그동안 한일전에 강한 면모를 보여와 한국으로선 경계 대상이다.

1999년 출범한 이 대회에서 한국은 4승1무3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2007년 연장 접전 끝에 졌고 지난해는 폭설로 대회가 취소돼 2006년 이후 3년 만에 승리를 노린다.

한국은 신지애 외에도 최나연(22·SK텔레콤), 지은희(23·휠라코리아), 서희경(23·하이트), 유소연(19·하이마트) 등 젊은 선수 위주로 대표 선수를 꾸렸다. 우승팀에 1인당 300만 엔씩 3천900만 엔, 진 팀은 1인당 150만 엔씩 총 1천950만 엔을 준다.

또 기자단 투표로 정해지는 최우수선수(MVP)에게 상금 100만 엔, 이틀 연속 이긴 선수들에게 200만 엔을 균등 분배한다. SBS와 SBS 골프 채널이 이틀간 중계 방송한다. /연합뉴스



우즈의 연인?

타이거 우즈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미국 뉴욕 나이트클럽 호스티스 레이철 우치텔이 지난달 30일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후 우즈와의 불륜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작년엔 재활 올해는 불륜

우즈 셰브론 불참… B급대회 전락

교통사고와 함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른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자신의 주최하는 골프대회 셰브론월드챌린지에 불참하면서 이 대회는 2년 연속 맥빠진 대회가 됐다.

3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오크스의 셔우드골프장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골프황제의 초청장을 받은 세계 정상급 골퍼들만이 출전하는 특급 이벤트 대회다.

적어도 세계랭킹 20위 이내에 들어야 출전할 수 있고 우승 상금은 135만달러에 이른다.

작년까지는 16명의 선수가 출전했지만 올해는 18명으로 숫자를 늘렸고 PGA챔피언십 우승자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와 재미교포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도 초청장을 받았다.

작년에는 무릎 수술 뒤 재활치료를 받느라 출전하지 못했던 우즈는 올해는 집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출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양용은, 앤서니 김, 맥도웰 이외에 올해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루카스 글로버와 스튜어트 싱크(이상 미국), 유럽의 강호 폴 케이시(잉글랜드),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 마르틴 카이머(독일), 이안 폴터(잉글랜드) 등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2000년대 최고 골퍼 "우즈"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1일(한국시간) "2000년대 최고의 선수는 타이거 우즈(미국)"라는 당연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PGA 투어는 192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최근 10년의 선수'를 선정했는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최고의 선수로 우즈를 선정한 것이다. PGA 투어는 "우즈는 이 기간에 메이저 12승을 포함해 투어 56승을 거뒀다. 2000년 US오픈부터 2001년 마스터스까지 4개 메이저대회를 휩쓸었고 PGA 투어 올해의 선수 8회 수상, 최근 4년간 세계 랭킹 1위 유지 등의 기록을 남겼다.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우즈를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우즈에 이어서는 필 미켈슨(미국)이 2위에 올랐고 비제이 싱(피지), 어니 엘스, 레티프 구센(이상 남아공), 짐 퓨릭, 케니 페리(이상 미국),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 데이비드 톰스(미국), 마이크 위어(캐나다) 순으로 10위까지 선정했다. /연합뉴스

KIA 황금장갑 잔치 벌이나

골든글러브

'V10' 위업…포지션별 골든글러브 후보 7명

로페즈·최희섭 등 유력 … KBO 43명 발표

〈3루수 김상현〉

2009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 김상현(KIA)과 KIA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던 외국인 투수 아킬리노 로페즈 등이 골든글러브 후보로 뽑혔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올 시즌 포지션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2009 골든글러브 후보로 투수, 포수,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외야수, 지명타자 등 8개 포지션 43명을 발표했다.

투수로는 이번 시즌 다승 공동 1위(14승5패)에 오르며 KIA의 한국시리즈 우승에 이바지한 로페즈와 SK 에이스 김광현, 26세이브로 최다 세이브 공동 1위에 오른 두산 이용찬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다승 공동 1위였던 롯데 조정훈, 삼성 윤성환과 함께 한화 마운드를 외롭게 지켜온 류현진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3루수 부문에서는 올 시즌 MVP 김상현과 김동주(두산), 이대호(롯데) 등 거포 5명이 경쟁을 벌인다.

1루수에서는 올해 완벽하게 부활한 최희섭과 포스트 시즌에서 SK 중심타자로 우뚝 선 박정권의 대결이 예상되며 2루수에는 SK 정근우의 독주가 예상된다. 3명을 뽑는 외야수에는 '타격 기계' 김현수(두산)와 타격왕 박용택(LG)을 비롯해 박재상(SK), 이택근(히어로즈), 김원섭(KIA)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유격수 부문에는 손시헌(두산), 나주환(SK), 이현곤(KIA) 등이 맞붙는다. 포수에는 우승팀 KIA 포수인 김상훈과 박경완을 대신해 시즌 중후반 SK의 안방을 흘로 책임진 정상호가 뽑혔다.

지명타자 부문에는 올 시즌 롯데 타선을 이끈 홍성흔과 로베르토 페타지니(LG), 최준석(두산) 등 3명이 경쟁한다.

구단별로는 2009년 한국시리즈 우승팀 KIA가 가장 많은 7명의 후보를 냈고 외국인 선수는 KIA 로페즈, 롯데 애킨스, 히어로즈 클락, LG 페타지니 등 4명이 후보로 뽑혔다. 또 안치홍(KIA)은 2006년 류현진에 이어 3년 만에 고졸 신인 선수로 골든글러브 후보에 올랐다.

후보에 오르려면 투수는 평균 자책점이 3.00 이하에다 14승 이상 올렸거나 25세이브 이상을 기록해야 하고, 포수와 내야수는 전 경기의 ⅘인 88경기 이상 출전해 규정 타석을 채우고 일정한 타율을 올려야 한다.

이 기준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각 부문 1위 수상자는 후보로 오를 수 있다. 1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투표에는 프로야구 기자단과 방송 해설위원 등 366명이 참가하며, 수상자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2009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포지션별 후보

▲ **투수** = 로페즈(KIA) 김광현(SK) 이용찬(두산) 조정훈 애킨스(이상 롯데) 윤성환 권혁(이상 삼성) 류현진(한화) ▲ **포수** = 김상훈(KIA) 정상호(SK) 현재윤(삼성) 강귀태(히어로즈) ▲ **1루수** = 최희섭(KIA) 박정권(SK) 김주찬(롯데) 채태인(삼성) 이승용(히어로즈) ▲ **2루수** = 안치홍(KIA) 정근우(SK) 신명철(삼성) ▲ **3루수** = 김상현(KIA) 김동주 이원석(이상 두산) 이대호(롯데) 정성훈(LG) ▲ **유격수** = 이현곤(KIA) 나주환(SK) 손시헌(두산) 강정호(히어로즈) 송광민(한화) ▲ **외야수** = 김원섭(KIA) 박재상(SK) 김현수(두산) 강봉규(삼성) 이택근 클락(이상 히어로즈) 박용택 이대형 이진영(이상 LG) 강동우(한화) ▲ **지명타자** = 최준석(두산) 홍성흔(롯데) 페타지니(LG) /연합뉴스

〈투수 로페즈〉

〈1루수 최희섭〉

〈2루수 안치홍〉

〈외야수 김원섭〉

〈포수 김상훈〉

〈유격수 이현곤〉

찬호 WS 배당금 300,000,000원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미국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배당금으로만 3억원(26만5천달러)이라는 짭짤한 부수익을 챙긴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1일(한국시간) 올해 포스트시즌 배당금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월드시리즈에서 뉴욕 양키스에 패해 내셔널리그 챔피언에 그친 필라델피아는 1천417만7547달러를 받는다. 한 팀 40인 로스터를 기준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올해 한 시즌을 거의 모두 소화한 주전급 선수와 코치등 45명에게 보너스로 26만5천357달러씩 돌아간다. 중간 계투에서 맹활약한 박찬호는 당연히 전액 보너스 대상이다.

월드시리즈 준우승에 그쳤지만 환율 인상 등으로 박찬호가 받는 금액은 두 번이나 월드시리즈 우승을 안은 김병현(30.전 피츠버그) 못지 않다.

김병현은 2001년 애리조나에서 27만9천달러, 2004년 보스턴에서 22만달러를 부수입으로 올렸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보통 그 팀의 주장이 구성한 선수위원회에서 포스트시즌 배당금 분배액을 정한다. 주전급은 물론 잠깐이라도 메이저리그에 발을 담갔던 마이너리거들에게도 소액의 배당금을 준다.

통산 27번째로 월드시리즈 우승컵을 안은 뉴욕 양키스는 46명이 각각 36만5천달러씩을 받는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디비전시리즈 첫 3경기, 리그챔피언십시리즈와 월드시리즈는 첫 4경기씩 총 11경기의 입장 수익을 바탕으로 포스트시즌에 오른 8팀과 각 지구 2위팀 등 총 12팀에 배당금을 나눠준다.

이 중 월드시리즈 우승팀이 수익의 36%, 준우승팀이 24%를 갖는다. /연합뉴스

프로야구선수협 노조설립 오늘 찬반투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손민한, 이하 선수협회)가 2일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열고 선수 노조 설립에 대한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권시형 선수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정기총회의 최대 현안은 노조 설립에 관해 선수들의 총의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협회의 노조 설립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선수협회는 2009 시즌 개막 직후인 지난 4월28일 손민한 회장 등 지도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노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당시 선수협회는 "협회를 만든지 10년이 지났지만 선수들의 권익은 전혀 향상된 것이 없다"며 노조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선수협회는 또 이날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새 회장을 선출한다.

롯데 투수 손민한은 2007년 12월부터 2년간 회장직을 맡아왔다. 선수협회는 "현재 추천된 후보가 있지만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상태라 총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KIA 윤석민·이용규 퇴소

KIA타이거즈 투수 윤석민과 외야수 이용규가 3일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퇴소한다.

태극마크를 달고 참가한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특례혜택을 받았던 윤석민과 이용규는 지난달 5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4주 동안 기초군사 훈련을 받았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퇴소식을 마친 뒤 팀으로 복귀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